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 두번째)과 총무부장 영담스님(왼쪽 첫번째),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왼쪽 세번째) 등 평양 방문단이 광범사에 도착해 북측 스님의 영접을 받고 있다.

얼어붙은 南北에 '봄소식' 전하다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평양 방문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텅다.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남북의 새 봄'을 맞이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구성했다. 총무원장으로는 첫 '단독일정'을 소화한 스님의 평양방문에는 총무부장 영담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이 수행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진은 '평양방문단'과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제공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1 평양 덕동농장에서 경작물을 살펴보는 총무원장 스님.
- 2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과 심상진 조분련 위원장이 선물을 교환했다.
- 3 평양 망경대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는 '평양 방문단'.
- 4 평양 덕동 돼지 사육공장을 돌아보는 총무원장 스님과 '평양 방문단'.
- 5 총무원장 스님(오른쪽 두번째)이 평양에 있는 제약공장에 전시된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가계 반응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평양방문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공공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의미 있는 일"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 방문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남북의 간격 좁히는 성과 거뒀"



정우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남북은 한민족이다. 우리의 희망은 통일이고 한민족이 같이 살아야 한다. 총무원장 스님이 북측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은 남북의 간격을 좁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교류는 국가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 60년이란 분단의 세월이 남긴 간격을 좁히고 남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불교가 윤희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교류 문 연 것... 고무적인 일"



법평스님(전국강원교직자협회장)= 남북이 정치적으로 매우 경색된 상황이다.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북한을 방문하여 민간교류의 문을 연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이 계기가 되어 민간교류 활성화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가 성사되길 바란다.

"불교계 큰 움직임... 굉장한 일"



김상근 목사(6·15 남북상임대표)= 총무원장 스님이 북한에 다녀온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과 같은 불교계의 큰 움직임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 불교가 크게 움직이면 국민 정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교의 이 같은 노력과 민(民)의 입장을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자승스님 평양 방문, 결실 맺기를"



박지민(국회의원)=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면담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언론계 대표들은 다녀왔지만, 종교계는 그렇게 못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방북은 불교의 진흥, 특히 북한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복원·발굴 의미가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평양방문 결과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실질적 교류 되도록 힘 보탬것"



권선택(국회의원)=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은 종교계 특히 민족종교인 불교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이질화를 방지하기 위해 앞장 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교류의 결과가 결실을 맺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도 못하는 것을 불교계가 노력해서 한 이번 방문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회차원에서도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간차원의 교류 물꼬 튼 의미"



김용현(동국대 교수)= 북측의 남북관계 흐름은 포사격을 하는 대남 강경과 있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두 흐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은 민간차원의 물꼬를 튼 의미가 있다. 민간교류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침체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산중총회소집공고

중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소집 일시 : 불기2554(2010)년 3월 2일 화요일(음 1월 17일) 오후 1시
- 소집 장소 : 제2교구 본사 용주사 효행교육관
- 안 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 ※ 단, 산중총회법 제4조제3항, 부칙 제3조 내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의 승려로서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54(2010)년 2월 20일(토)~2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2부
 - 제적등본(원칙이 표시된 등본부터)..... 각 2부
 - 이력서..... 1부
 - 사진 (반명함판)..... 5매
 4. 거주승 신고기간
 - 불기2554(2010)년 2월 20일(토) ~ 2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 불기2554(2010)년 2월 23일(화) ~ 2월 25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 입후보자등록·거주승신고·구성원명부열람 장소
 - 제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용주사 종무소)
- 문의처
 - 제2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31-226-3488)

공 고

전강대중사 문도회 정기총회

전강대중사 문도회 규약 제 14조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_ 불기 2554년 3월 2일(음.1.17) 화요일 12시
※ 점심공양 11시
- 장 소 _ 용주사 효행교육관

불기2554(2010)년 2월 10일
전강대중사 문도회 의장 정무

공 고

전강대중사 문도 장학생 소집

전강대중사 문도회 규약 제 14조에 의거하여 문도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_ 불기2554년 3월2일(음.1.17) 화요일 12시
- 장 소 _ 용주사 효행교육관
- 안 건 _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신청(제출서류)
제학증명서, 승려증서본, 통장사본
※ 2월25일까지 용주사종무소에 제출

불기2554(2010)년 2월 10일
전강대중사 문도회 의장 정무